

# 편견·빈곤·우울증...北이탈 주민들 힘든 한국살이

### ■ 목숨 건 탈출 그 후...광주·전남 탈북자들의 실태

### 사기에 돈 날리고 병마에 시달린 30대 숨진채 발견 충격 사회적 무관심 속 일자리 구해도 절반이 6개월만에 하차

A(35)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지난 2003년 북한에서 홀로 한국으로 들어와 광주에 정착했다. 지난 2008년 A씨 친누나(36)도 북한에서 넘어왔다. 지역 공장에서 일하며 10년을 지냈지만 온전한 '한국인'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사회적 편견에 따른 부적응도 나이지 않았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다. 술을 가까이하

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강도 증상을 찾아왔다. A씨는 결국 지난 21일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처럼 목숨을 걸고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부족한 학력·경력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5일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235명(광주 579명·전남 656명)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5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37.6%에 달했고 78.4%는 평균 월급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재단측은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이질적인 남쪽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우도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주·전남지역 북한이탈주민 중 92%가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절실하다. 탈북 청소년 91명 중 42.9%는 한 부모 가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홀로 힘든 남한 생활을 버려내는 탈북 청소년들도 5.5%나 됐다. 반면, 이들 탈북 청소년의 60.2%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만한 친한 또래 친구가 4명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편견을 우려,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절반(58.3%)을 넘는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체제와 전혀 다른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초겨울 정취 만끽 있다.

겨울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받쳐든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메타세콰이아길을 걸으며 초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합숙형 출제 오류재발 가능성 문제은행 방식 도입 검토해야”

### ‘수능 오류’ 긴급 토론회 주장

“합숙형 출제보다는 선진화된 문제은행 방식을 적극 검토해 시범적으로 특정 수능과목부터 도입해야 한다.”

“출제오류가 발생한 두 문항 모두 EBS 연계 문항이었다. EBS 연계 출제는 사교육 감소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교육만 망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현행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용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올해 수능에서 출제오류로 복수정답 처리된 영어 25번 문항은 명백한 실수”라며 “영어영역은 기출문항이 타 영역에 비해 수십 배 많아 기출 문

항과 다른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인 출제진의 피로도 탓에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생명과학 II 8번 문항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II는 의·치대 등을 지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출제진이 상위권 변별 문항 개발 필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8번 문항의 난도를 무리하게 높이고자 하면서 발생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수능과 EBS 연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완호 대일고 교사는 “EBS 연계 정책으로 EBS가 절대권력이 되다 보니 EBS 교재가 고3 교실의 교과서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심삼수 EBS 학교교육기획부장은 “EBS 연계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EBS 연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세부행 아시아나 항공기

### 이륙 26분만에 되돌아와

승객 185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아시아나 소속 항공편이 고장으로 긴급 회항했다.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49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OZ709편이 이륙한 지 26분 만에 광주 인근 상공에서 유압 계통 이상을 일으켜 오후 10시 57분께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착륙을 위해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행하며 제트유를 소모했고, 나머지 연료는 인천공항 주변 해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를 정비해 원인을 찾는 중이고, 승객 분들은 다른 항공편을 준비해 자정께 재출발하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연향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일몰 10:24  
해질 17:22      월출 21:11

### 가치 밥 주렁주렁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린뒤 맑음	9/15	보성	흐린뒤 맑음	7/15
목포	비온뒤 맑음	8/14	순천	맑음	8/16
여수	흐린뒤 맑음	11/14	영광	비온뒤 맑음	8/14
나주	흐린뒤 맑음	8/15	진도	비온뒤 맑음	8/14
완도	비온뒤 맑음	9/15	전주	맑음	6/15
구례	맑음	5/16	군산	비온뒤 맑음	7/15
강진	흐린뒤 맑음	8/15	남원	맑음	5/15
해남	비온뒤 맑음	8/15	축산도	비온뒤 맑음	10/13
장성	흐린뒤 맑음	8/14			

### ◇바다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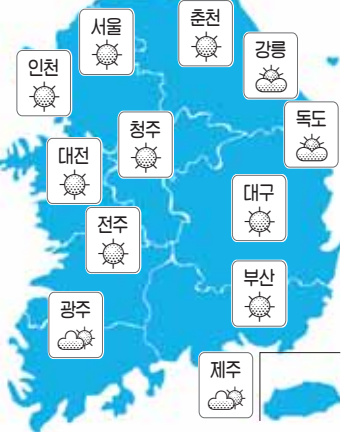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
서부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
서부	남부	북~북동	1.5~3.0	북~북동	0.5~1.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31	22:11	04:20	17:02
여수	밀물		썰물	
	11:37	23:44	04:55	17:44

### ◇주간 날씨

27(목)	28(금)	29(토)	30(일)	12/1(월)	2(화)	3(수)
☀	☁	☁	☁	☁	☁	☁
4/17	6/12	7/14	4/12	7/10	1/6	0/8



### ◇생활지수

식중독	38
운동	70
빨래	60

## “허니버터칩”이 얼마나 맛있길래

### SNS 등 입소문 타고 인기... 없어서 못팔아 “급구” 게시물에 2배 넘는 가격에 내놓기도

850만 식객(食客)을 돌파한 과자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SNS에 각종 인증샷과 제보가 잇따르고 정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도 거래하겠다는 누리꾼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시한 이 과자는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기존 감자칩의 짠맛을 줄이고 달콤한 맛을 가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47에 위치한 C 편의점은 지난 22일 과자 1상자(16봉지)를 납품받았는데 그마저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 팔렸다.

허니버터칩 대란에는 SNS나 인터넷 게시물 등이 한 몫을 했다. 허니버터칩 페이스북 페이지는 만들어진 뒤 두 달 만에 누리꾼 6만3658명이 친구를 맺었다.

조선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허니버터칩 ‘사냥’을 들고 있다는 글에 대한 ‘좋아요’ 클릭이 100건을 넘었으며, 수십 건의 제보 댓글이 달리고 있다.

광주 곳곳은 물론 담양, 광양 등에서 해당 과자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동네 인근 슈퍼를 뒤져 과자를 공수한 인증샷도 연일 오르고 있다.



조선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허니버터칩 ‘사냥’ 글.

다. 상자 한 가득 담긴 과자를 찍은 인증샷에는 “묵음 인질극”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지난 24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광주에서 허니버터칩을 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랐다. 곧바로 이 글에는 10봉지 단위로 4만원에 팔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시중 편의점에서 1봉지 당 1500원에 팔리고 있어도 2배 넘는 가격을 무릅쓰는 누리꾼의 허니버터칩 ‘알이’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 대한보청기

#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 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재한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장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원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월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www.maxo.co.kr